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코로나와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우울함을 달래주는 하나의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바로 트로트의 열풍입니다. 다양한 이들이 재능을 펼치며 흥을 잃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 가운데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곡은 듣는 이로 하여금 박장대소 짓게 합니다. 믿었던 상대방에게 배신당하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그 감정을 유쾌하게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성경 말씀은 이 노래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제1독서(이사 22,19-23)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브나를 관직에서 쫓으시고 엘야킴을 그 자리에 앉히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구약성경의 전체 흐름을 모르는 이에게는 하느님의 선택이 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운명론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는 하느님의 선택 앞에 실망과 배신감마저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한 하느님의 선택이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에 그분 홀로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2독서(로마 11,33-36)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자 이 민족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사실을 설명하는 로마서 11장 안에 위치합니다. 예비자 교리 중 한 청년이 “신부님, 하느님은 왜 고조선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맡겨진 자유로운 선택,

즉 그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복음(마태 16,13-20)은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가 스승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군중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후(마태 16,13), 제자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마태 16,15). 그러자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마태 16,16)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마태 16,18), 그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마태 16,19). 이번 주일 복음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다음 주일 복음(마태 16,21-27)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수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당혹스럽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 –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마태 16,22) – 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망과 변심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 나 자신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 나는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

순례 중 성전 밖에서 우연히 고해성사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듣고 아픈 듯 힘겨워하는 사제의 표정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주님 매인 마음을 풀지 못해 신음하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혜련 분다 | 가톨릭사진가회